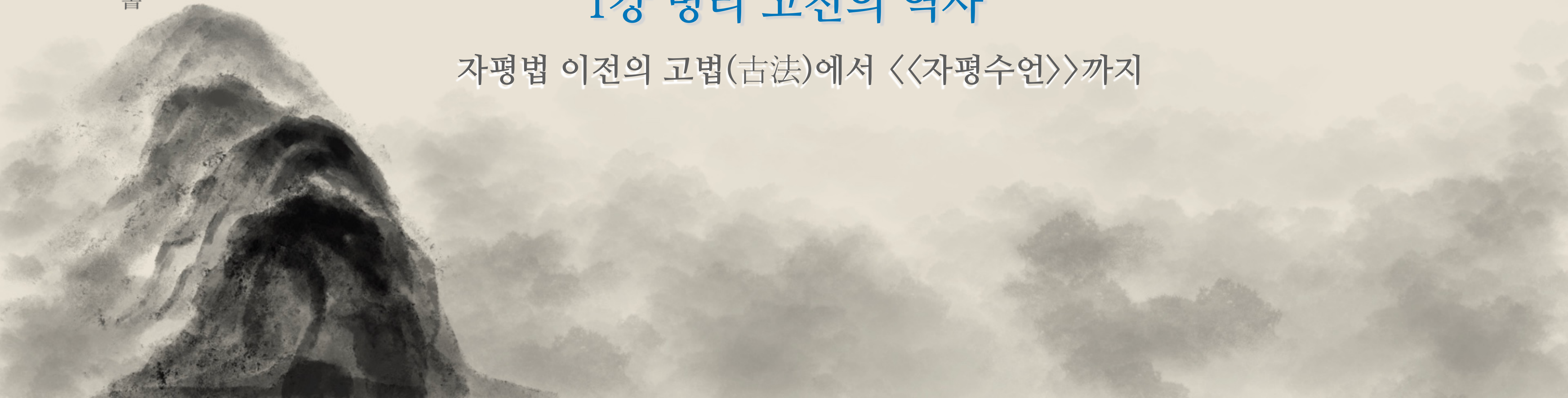


명리 고전 하이라이트 강독 I

李虛中命書
子平粹言

1강 명리 고전의 역사

자평법 이전의 고법(古法)에서 <<자평수언>>까지



1강 명리 고전의 역사

<<성명집성(星命集成)>>의 에피소드

한나라말기에서 당송시대

명리학 형성의 조건

- 1) 개인 혹은 개인의 주체성의 중시
 - 원시적 주술의 탈피 : 천에서 인으로
- 2) 사회의 안정적 유형화
- 3) 세속적 가치의 성립

공자의 노력과 깨달음

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”

왕충의 자연정명론(自然定命論) : 동중서의 천인감응론 비판

“하늘의 도는 자연적이고 길흉은 우연히 모인다(天道自然 吉凶偶會)”

- 대담한 가설 : 처음 부여받은 기운으로서의 원정(元精)

“국가의 명운이 개인의 명운을 이긴다”

주역의 괘효 부호 모형과 음양오행의 간지 부호 모형

수대 소길의 <<오행대의>>

- 진에서 수에 이르는 저술 중에서 오행론 편찬
- 통계학적 예제 제시

당대 이허중의 <<이허중명서>> 출현

-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명리이론서
- 명리학의 첫 번째 사건 : 연월일시 사주로 녹명을 추산

《연해자평》

자평명리학의 출현 (자평 서거이와 서승 그리고 당금지)

- 이허중의 연역적 방법 계승
전적으로 오행을 위주로하고 납음을 무시
- 명리학의 두 번째 사건 : 일간 중심으로 팔자의 명을 논하는 방식 확립
- 총5권으로 구성
 - 1권 명리의 기본 내용
 - 2권 각종 격국
 - 3권 육친과 여명
 - 4~5권 명리에 관한 시결 수집

명대 - 명리 저작의 비약적 증가의 시대

〈〈난대묘선〉〉

- 남음의 현상을 다룸

《삼명통회》 12권 (만민영)

- 천간지지와 음양오행의 속성 및 육십갑자의 납음취상
- 형충합과 화기 및 신살
- 대운과 소운, 태원과 명궁
- 격국의 현상과 팔자의 형식
- 육친과 여명
- 720개의 일과 시의 조합에 대한 판단과 사례
- 기타 대량과 구결과 시부의 문헌 수집

1강 명리 고전의 역사

〈〈삼명통회〉〉 - 명리학사의 하나의 분기점

〈〈명리정종〉〉 (‘신봉통고벽류명리정종’ - 장남)

- 각종 오류에 대한 비판
 - 오성법 및 기존 격국(일귀격 구진득위격 종혁격 등) 논박
단 신살과 특히 십이운성에 대해선 긍정적
(십이운성을 일간의 강약 판단에 적극 수용)
 - 동정설 개두설 육친설 병약설 등 독창적 이론 제시
 - 음간 십이운성론과 체성론과 물상론에 적극적 입장
 - 격국과 용신을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범주로 봄
- * 〈〈적천수〉〉는 완전 구분

《《적천수》》

《《적천수집요》》(진소암)

《《적천수천미》》(임철초)

《《적천수징의》》 《《적천수평주》》(서낙오)

- 신살 지양 및 격국에 얽매이지 않음

- 상하 두편(통신론과 육친론) 총4권

- 생극제화와 억강부약의 원리 중심

- 육친론의 수정

- 심효침의 격국론 비판 (중화사상에 입각한 용신)

1강 명리 고전의 역사

〈〈난강망〉〉(공통보감) - 작자 미상

〈〈조화원약〉〉(서락오)

- 조후용신(한난조습)의 경전
- 일간을 12개 월지에 대입

청대 - 명리학의 비상

〈〈명리약언〉〉(진소암)

- 유배지의 저작
- 총4권 (법/부/논/잡)의 요결
- 신살 배제 오행이론으로 논명
- 격국을 간명의 최우선으로 간주
- 억부용신을 중시
- 연주를 월주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

〈〈자평진전〉〉(심효첨)

- 삼명학과 완전 결별
- 월지 중심의 격국론 정립 (8정격) : 4길격과 4흉격
- 종격 인정(〈적천수〉와 같은 입장)

1강 명리 고전의 역사

신해혁명 이후 20세기

《《자평수언》》(서락오)

- 3대 고전(《《적천수》》, 《《자평진전》》, 《《궁통보감》》)의
핵심을 저자의 관점으로 집대성

1강 명리 고전의 역사

오행생극의 관점

재관십신과 신살의 관점

물리조후적 관점